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이 순 형¹⁾

진 미 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정치사회적 이념체계가 상이한 북한과 남한사회를 모두 경험한 새터민의 가치관을 조사함으로써 거시적 이념체계가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북한에 있었을 때와 현재 한국에 있을 때 새터민의 가치관을 쌍체 t 검증으로 비교하였다. 18세 이상 새터민 19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새터민의 가치관 점수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 온 후 새터민들은 북한에 있었을 때보다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본 결과, 가족동반탈북 여부,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과 입국 후 거주기간은 물질주의 가치관의 약화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기혼여부는 물질주의 가치관 약화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제3국 거주기간은 가족주의 가치관 약화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포함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은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새터민, 가치관,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 본 연구는 2004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지원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 mchin@snu.ac.kr)

I. 서 론

문제 제기

새터민이란 북한을 탈출한 후 제3국을 거쳐 남한 사회에 입국하여 정착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 위기 이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중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숫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통일부, 2004).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주민의 일부는 신분의 위협과 불안정한 생활문제 때문에 다시 목숨을 걸고 남한에 입국하고자 시도하는데, 2005년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새터민은 약 7,000명이 넘는다(통일부, 2005).

새터민들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이 있다. 동시에 새터민이 경험한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사회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이들은 폐쇄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다가 탈출하여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 입국해서 살고 있다. 새터민은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십여 년 이상 생활했고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년을 살면서 두 사회의 특성을 상세히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두 개의 서로 대비되는 정치적 이념의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해 새터민들은 아마도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생각 즉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스탈린 사후에 체제 위기를 느껴 1958년 이후 주체사상을 제시했다. 주체사

상은 1960년대 말까지는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토대를 두었으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의 원인을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찾고 있는데 반해서 인간의 혁명의지에서 찾는 등 점차 독자적 변화의 길을 걸었다(고병철, 1990). 특히 주체사상은 하위이념으로 집합주의, 유일사상과 가부장주의를 택하고 있다(북한연구소, 1978). 집합주의나 유일사상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주민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이러한 사회분위기나 제도는 곧 삶의 목적,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구조로서 주관적 구조화, 부정(否定), 반성,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Rosenberg, Ward & Chilton, 1988)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Rosenberg et al., 1988, 13) 첫째는 전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치며, 둘째는 전 단계가 부적절할 경우에 반성적 반응을 거쳐서 새 단계로 이행되는 특성이 있다. 셋째 특성은 환경이 개인의 발달을 자극하며, 환경의 구조적 차이가 개인들의 발달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 차이는 개인차를 넘어서 사고와 이념의 구조적 차이를 생산해 낸다.

개인의 이념정향이나 가치관 등이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1980년대 가족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거시환경 요소 중에 이념과 정치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으로서 개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1979; Triandis, 1995). 새터민들은 상이한 정치적 생태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개인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연구 정보를 제공한다. 새터민들은 북한사회에서 태어나 살면서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은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가 다른 새로운 사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까? 특히 새터민 스스로는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를,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새터민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겪을 적응상의 문제를 예견하고 알맞은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집합주의의 가치가 높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나 물질주의의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Triandis, 1995).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집단중심의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것에서 보듯 집합주의의 정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기춘 등, 2001). 한편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는데,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Triandis의 주장을 수용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강화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처럼 조선족의 역사 속에서 유지되어온 가치 정향이 공산화 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산주의 속성상 가족주의는 희석되거나 완화되었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¹⁾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되

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도 흥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소련 공산당은 가부장제를 남녀차별로 간주하고 남녀차별이나 가족주의를 없애야 진정한 공산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선언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를 지양했는지, 아니면 서구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북한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가부장적 성역할이 더 강화되었는지 아니면 더 약화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생태환경이 전혀 다른 두 사회에서 살아온 새터민들에게 북한사회에 있었을 당시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가치관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새터민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새터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와 현재 남한에 거주할 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새터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집합주의의 가치관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와 남한에 거주할 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새터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개인주의의 가치관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와 남한에 거주할 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새터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와 남한에 거주할 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새터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

1) 공산당선언에서는 가족주의를 타파해야 할 전근대적 정향으로 지적했다.

신의 가부장적 성역할 가치관은 북한에 거주하였을 때와 남한에 거주할 때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새터민의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

가치관의 형성 과정

가치관이란 개인의 사고 구조를 의미하며 주관적 구조화, 부정(否定), 반성,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Rosenberg, Ward & Chilton, 1988)으로서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Rosenberg와 그 동료들(1988)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전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치며, 둘째는 전 단계가 부적절할 경우 반성적 반응을 거쳐서 새 단계로 이행되는 특성이 있다. 셋째 특성은 환경이 개인의 발달을 자극하는데 환경의 구조적 차이가 개인들의 발달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 차이는 단순히 개인차를 넘어서 사고와 이념의 구조적 차이를 생산해 낸다. 피아제는 모든 사회 환경은 개인의 가치정향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개인의 이념정향이나 가치 등이 생태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1980년대 가족생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거시환경 요소 중에 이념과 정치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으로서 개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nfenbrenner, 1979; Triandis, 1995). 그러

나 실제 이 논제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체계 하에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비교문화적 접근을 하였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나 문화권에 속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속성 외에도 관련될 만한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의 다른 속성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소련과 미국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를 밝힌 Bronfenbrenner의 연구(1980)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인 소련과 미국에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특성이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 집단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에서 표집된 두 집단사이의 차이를 이념의 차이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종,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 사회역사나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거시적 변수가 먼저 통제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채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두 집단의 양육신념이나 방식의 차이가 집단 이념의 차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변수의 차이를 통제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개의 사회에 동시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두 군데에 모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인종, 성별, 심리적 특성들과 같은 개인적 변수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의 사회를 모두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그가 속한 사회의 이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새터민들은 이러한 연구 접근법을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집단이다. 새터민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이주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들이 떠난 사회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서로 매우 다른 정치경제적 이념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은 독특하다. 이들은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수십 년을 생활했고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년을 살면서 두 사회의 특성을 상세히 알고 경험했다. 이들이 자신의 북한사회에서의 삶과 남한사회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스스로 삶의 자세가 변화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를 통해서 새터민들의 이념 정향, 가치의 변화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의 가치관

한 사회의 정치적 이념은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가치관을 구조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남북한 사회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경제구조를 발달시키며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치관 역시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이점은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징으로 하는 집합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통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Triandis, 1995).

두 이념 및 정치체제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가 공유해 온 역사적 공통성에 주목한다면 공유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이다(차재호, 2000). 남북한 사회는 모두 가족주의 전통에 기대어 국가를 운영해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역할, 가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집합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남북한 사회의 가치관의 상이성과 유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집합주의 이념이 강조된다. 북한사회에서는 아동기부터 집단주의적 정책을 통해 사회화를 시킨다. ‘하나를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말하듯이, 북한사회에서는 어린이나 성인에게 집단주의적 인간상을 요구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누구나 집단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7세만 넘으면 조선소년단에 소속되어 소년단 간부가 선출되고 소년단 지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집단 소속은 연령 제한이 있는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가 넘어야 비로소 집단에서 해방된다(박성희, 1995; 이기춘 외, 2001).

북한에서는 아동기부터 매사에 지도원의 감시와 또래들의 눈을 의식하도록 사회화된다. 매주 매일 실시되는 총화 시간과 생활총화 시간에 자기비판과 동료 비판을 하거나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되어 있다. 개별 행동과 독자적 사고는 금지된다. 당과 학교에서 지시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아동은 일찍이 누구나 비슷한 생활과 사고에 젖어들어 별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성장한다. 집단화의 구조 속에서 별 저항 없이 집단주의적 인성으로 형성되는 것이다(박성희, 1995; 이기춘 등, 2001).

물질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사고 경향을 의미하며,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보다 가까운 가치관이다(Triandis, 1995).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배급체계가

불안정해져서 시장을 통해 교환 및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경제는 경제적 한계상황에 봉착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물질의 중요성을 오히려 더 높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수 있다(이기춘 등, 2001).

가족주의란 가족을 개인이나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가치는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되는 가족의 우선성, 부모봉양과 효의 강조, 가장이 중심이 되는 부계가문의 연속화, 형제 자매 및 친족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과 관련된 규범이다(옥선화, 1989; 최흥기, 1982). 가부장제 가족의 내부적 특징은 성별에 따른 역할 분업이 엄격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가정 외 생산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여성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가정 밖이라는 공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현상과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한다(유영주, 1990; 이광규, 1975; 이순형, 1993;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2006; Walby, 1990).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는 국가의 개입 없이 가족에게 개인의 복지를 맡겨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남한사회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모성이나 효라는 규범을 통하여 사적인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었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명시적으로는 가정의 혁명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가족주의를 지양하고자 하였으나(이기춘 등, 2001), 실제로는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명명될 수 있을 만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중요한 정치 사회 체제의 운영 기제가 되고 있다(박현선, 2003).

북한에서는 가부장주의를 사회화를 통해서 주입한다. 북한 주민들이 충성 서약을 할 때 외우는 충성원칙 10개 중에 열 번째는 김일성 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김일성부자의 출생연도, 출생지, 가계(家系) 등에 대해서 연도와 지역 등을 암기해야 한다. 김일성의 부모, 조부모, 김정일의 모친 등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소개되고 우상화되고 있다. 가계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인물처럼 포장되어 공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정치체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의 의식에서만 유가적 요소가 왜곡되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치인들의 의식에서도 그러하니, 북한의 모든 정치 체제가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권력을 아들에게 세습하자, 명칭에도 부자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이 ‘할아버지수령님’과 ‘아버이김정일’이 된 것이다. ‘충성동이’ ‘효성동이’란 말처럼 충과 효를 내세운 것은 가부장적 정치체제의 한 단면이다(이순형, 1999).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북한에서의 가족생활에 익숙해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와서 새로운 가족문화에 접하게 된다. 남한의 가족 역시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토대하고 있으나 북한가족에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나 양상은 매우 다르다(임현진, 정영철, 2005).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사회주의적 이념형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상적 생활세계에는 엄격한 가부장적 규범이 남아있어

서 성별, 세대별 위계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박현선, 1988, 2003; 안연진, 2002; 이기춘 등, 2001). 탈북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탈북자들이 전통 유교적 태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 예절바르며 남편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익숙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이기영, 2000; 전우택, 1997 최홍기, 1991).

II. 연구방법

조사대상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5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18세 이상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93년까지 한국에 온 새터민의 숫자는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50명을 넘었고, 99년에는 100명을 돌파하여 세 자리 숫자가 되었다. 2002년에는 천명을 넘는 새터민이 입국하였고 2004년 마지막 통계에는 거의 이천 명에 달하는 이탈주민이 입국하여, 2004년 현재 남한사회에는 전국적으로 약 7000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2005).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5년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새터민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 중 편의표집법에 의해 300명을 선정하여 신문이 배달될 때 같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신문사 직원에 의해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300부 중 총 195부가 수거되어 이를 최종적으로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

설문조사는 새터민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에서와 남한에서의 가치관 및 사고의 변화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새터민의 가치관

북한과 남한에서의 가치관 조사문항은 총 14문항으로 물질주의 가치 4문항, 집합주의 가치 2문항, 개인주의 가치 2문항, 가족주의 가치 4문항, 성역할에 대한 생각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치관 조사문항은 이기춘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북한에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남한에 있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로 제시되어 있는 표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으로 점수를 주도록 요구받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리커트형 점수를 주었다. 각 영역별 문항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점을 사용하는 대신 영역별로 평균을 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한 결과, 북한/남한에서의 물질주의 가치정향의 α 는 북한/남한 각각 .62과 .49, 집합주의 가치정향의 α 는 각각 .30과 .59, 개인주의 가치정향의 α 는 각각 .68과 .57, 가족주의 가치정향의 α 는 각각 .54와 .33, 그리고 성역할 인지의 α 는 북한/남한 각각 .54와 .3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지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하위영역에 포함된 문항들 간의 상관성이 낮아 하나의 이론적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

표 1. 북한과 남한에서의 가치정향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문항	신뢰도(α)
물질주의	1. 사람들이 간부들과 사귀려고 하는 것은 출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62) 남한(.49)
	2.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쌀독에서 인정난다고, 수입이 많아야 남을 배려할 수 있다.	
	4.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재산이 결정요인이 된다.	
집합주의	5.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북한(.30) 남한(.59)
	6.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과 의견이 같아야 마음이 편하다.	
개인주의	7. 내 일은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북한(.68) 남한(.57)
	8.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윗사람이 못하게 해도 하겠다.	
가족주의	9.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 살아야 한다.	북한(.54) 남한(.33)
	10.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나보다 내 가족의 영광이 되므로 중요하다.	
	11.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는 것은 가족 뿐 아니라 가문전체의 불행이다.	
	13. 이혼은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가부장적 성역할	12. 부부가 모두 가정 밖에서 일을 해도 집안일(가사)은 여성이 할 일이다.	북한(.54) 남한(.39)
	14. 사회에서 하는 일에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따로 있다.	

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각 하위영역에 포함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조사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가치관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지위 등과 같은 특성에 의해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탈북 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3국 거주기간과 입국 후 경과기간을 조사하였다.²⁾ 연령은 년으로 측정하였고,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처리하였다. 응답자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으로 조사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를 조사하여 이분변수화하였다. 결혼지위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배우자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이분변수화하였다. 또한 가족동반 탈북 여부는 가족주의나 집합주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방법

수집된 195부의 설문지는 항목 별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치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가졌던 가치관의 점수에서 현재 남한에서 인식하는 가치관 점수를 빼서

2) 제3국 거주기간과 입국 후 경과기간 사이에는 -.15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최근 입국자일수록 제3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를 내고,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기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가족동반여부, 탈북 후 경과기간, 입국 후 경과기간 등을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가치관 점수가 남한에서의 가치점수보다 높은 경우를 1,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남한에서의 점수가 더 높은 경우를 0으로 이분변수로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대상인 응답자의 인구배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195명 중 남성이 42%, 여성이 55%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가 24%를 차지하였다. 탈북시기별로 보면 1997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는 20명(11%)인 반면, 1998년 탈북한 응답자가 54명(29%), 1999년 탈북한 응답자가 35명(18%)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1998년부터 탈북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입국시기별로 보면, 2004년 입국자가 60명(31%)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전체응답자의 약 90%가 2001년 이후에 입국하여 정착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들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새터민들 중에 혼자 탈북한 사람은 74명(38%)이며,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경우는 91명(47%)로서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65명(33%)이고 기혼이 117명(60%)이

다. 새터민의 직업은 회사원이나 공장근로자 등이 39명(20%)으로 조사되었고, 건축현장 노동자나 파출부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31명(16%), 현재 구직중인 경우와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51명(26%)이었다. 검정고시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명(18%)이다. 새터민의 종교는 기독교 86명(44%), 천주교 11명(6%), 불교 7명(4%), 기타는 30명(15%), 무교는 40명(21%)이다.

수입의 원천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86명(44%), 정착금 보조 36명(18%),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매월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41명(21%)이다. 새터민 중에 약 44%만이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새터민들이 응답을 하지 않아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무응답은 결혼지위, 현재 하는 일, 수입의 원천 등 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 경향은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다.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성인들의 가치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현재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영역별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간의 점수 차이를 쌍체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반적으로 볼 때, 새터민들은 북한에 있었을 때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 정향이 더 높았고,

표 2. 새터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95)

변수	응답범주	빈도(%)	변수	응답범주	빈도(%)
성별	남성	81(41.54)	탈북시기	1995년 이전	1(0.51)
	여성	107(54.87)		1996	7(3.6)
	무응답	7(3.59)		1997	12(6.15)
연령	20세 미만	11(5.64)		1998	54(27.69)
	20-29세	47(24.10)		1999	35(17.95)
	30-39세	85(43.59)		2000	19(9.74)
	40-49세	24(12.31)		2001	19(9.74)
	50-59세	8(4.10)		2002	15(7.7)
	60세 이상	6(3.08)		2003	19(9.74)
	무응답	14(7.18)		2004	7(3.59)
	무응답	7(3.59)		무응답	7(3.59)
가족동반 탈북여부	혼자	74(37.95)	입국시기	1995년 이전	1(0.51)
	가족동반	91(46.67)		1997	2(1.03)
	무응답	30(15.38)		1998	5(2.56)
결혼지위	미혼	65(33.33)		1999	1(0.51)
	기혼	117(60)		2000	4(2.05)
	무응답	13(6.67)		2001	19(9.74)
종교	없음	40(20.51)		2002	39(20)
	기독교	86(44.10)		2003	55(28.21)
	불교	7(3.59)		2004	60(30.77)
	천주교	11(5.64)		2005	1(0.51)
	기타	30(15.39)		무응답	8(4.10)
	무응답	21(10.77)		근로소득	86(44.10)
	무응답	21(10.77)		정착금보조	36(18.46)
현재 하는 일	회사원	24(12.31)	수입의 원천	기초생활수급	41(21.03)
	공장근로자	15(7.69)		기타	5(2.57)
	일용근로자	31(15.9)		무응답	25(12.82)
	구직	21(10.77)		없음	75(38.97)
	가사	6(3.08)		가족	109(55.90)
	학교	29(14.87)	현재 동거인	무응답	11(5.13)
	취업학원	30(15.38)			
	검정고시학원	6(3.08)			
	기타	7(3.59)			
	무응답	26(13.33)			

남한에 와서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예외적으로 개인주의는 북한에 있었을 때와 남한에 있을 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먼저 물질주의 지향가치를 보면, 새터민들은 북한사회에서 자신이 가졌던 물질주의 지향가치를 평균 3.78점으로 응답한 한편 현재 남한에서의 물질주의 지향가치를 3.11점으로 낮게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보다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더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필품마저 부족한 북한사회에서 탈북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강구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도 하지 않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어 오히려 생존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합주의 점수는 북한에서의 성향이 3.27점, 남한에서의 성향이 2.85점으로 나타나 역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이 더 집합주의 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북한사회에서 자신의 집합주의 가치관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도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남한에서의 성향 점수가 더 낮다는 결과는 새터민이 북한에서 가졌던 집합주의 의식이 남한사회에서 다소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주의 가치관에 관한 보고이다. 북한 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3.32점으로 응답하고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3.28점으로 응답해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남한사회에서의 개인주의 가치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점수 분포는 그렇지 않았다. 자유와 경쟁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 남한 사회에서 개인주의 점수가 높아지기에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며, 그것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남한사회에 생존에 맞부닥뜨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북한에서는 3.70점이고 남한에서는 3.1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 형태를 지향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가 남한에 와서 수정,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족주의를 구성한 문항의 특성상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동일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점수 분포에서 가부장적 성역할 점수가 북한에서 3.58점이고 남한에서 2.49점으로 남한에서보다 북한에서 가부장적 성역할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일관성 있는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와 남한에서의 가치관 평균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가장 차이가 높고(1.09점), 다음이 물질주의(.67점), 가족주의(.59점), 집합주의(.43점), 개인주의(.03점)의 순이다. 즉 새터민이 남한에 온 후 가장 많이 변화한 영역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이 따로 있다)와 공사영역의 분리(부부가 모두 가정 밖에서 일을 해도 집안일은 여성이 할 일이다)로 측정되었다. 새터

민들은 남한에 온 이후 양성평등 이념과 생활 양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영역과 역할의 고정된 관념에 도전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의 약화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앞부분에서는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를 평균 차이를 가지고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각 영역별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새터민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북한에서의 가치관 점수가 더 높고, 남한에서의 가치관 점수가 더 낮아 남한에 온 후 특정한 가치정향이 더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반대로 북한에서의 점수보다 남한에서의 점수가 더 높아 특정한 가치관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이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가치관 점수에 변화가 없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물질주의 점수가 현재 남한에서의 물질주의 점수보다 높으면 첫 번째 집단, 반

대로 남한에서의 물질주의 점수가 더 높으면 두 번째 집단, 차이가 없으면 세 번째 집단에 속하게 된다.

표 3은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가치관이 약화된 사례, 강화된 사례, 변화가 없는 사례의 빈도수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가치관이 약화된 경우가 가장 많고, 강화된 경우가 가장 적었다. 그러한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로서, 전체 195명중 151명(77%)이 남한에 온 후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강화되었다고 한 경우는 10명(5.1%)에 불과하였다. 반면 개인주의의 경우, 약화되었다는 인식한 사람이 78명(40%), 강화되었다고 인식한 사람이 51명(26%), 변화가 없다고 인식한 사람이 66명(34%)을 차지하였다.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3에 제시된 집단 중 ‘강화되었음’과 ‘변화 없음’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약화되었음’이라고 한 집단과 대비시켰다. 가치관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새터

표 3. 북한에서와 남한에서의 가치정향 차이 - 쌍체 t 검증

구분	북한에서			남한에서			평균차이	쌍체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물질주의	195	3.78	.60	189	3.11	.57	.67	11.59***
집합주의	195	3.27	.61	190	2.85	.70	.43	7.05***
개인주의	195	3.32	.85	186	3.28	.71	.03	0.48
가족주의	195	3.70	.69	188	3.12	.61	.59	12.25***
가부장적 성역할	195	3.58	.81	188	2.49	.65	1.09	15.24***

*** p<.001

민에 비해 변화가 없거나 강화되었다고 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대부분의 새터민이 남한에 와서 물질주의 가치관 등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치관이 강화되거나 변화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의 총 5개영역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성별, 기혼여부,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가족동반 탈북여부, 제3국 거주기간, 입국 후 경과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총 5개의 모델 중 물질주의와 가족주의를 설명하는 모델만이 유의한 모델로 나타났다기 때문에(물질주의 모델적합성은 LL Ratio test, Chi-square 29.90, df=7 p=.001, 가족주의 모델적합성은 (LL Ratio test, Chi-square 13.99, df=7 p=.051), 표 4에는 물질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의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물질주의 관련 변수들 중에는 가족동반 탈북여부, 기혼여부, 제3국 거주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발견되었다. 가족 중 한 명이상을 동반하고 탈북한 경우에 물질주의 가치관이 약화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자 탈북한 사람에 비해 가족을 동반한 사람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더 강조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결혼한 적이 있는 기혼의 새터민은 미혼의 새터민과 비교해 볼 때, 물질주의 가치관이 더 약화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동반 탈북 여부와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관련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있는 새터민(그러나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는 통제되지 않음)은 남한에 온 후 물질주의 가치관이 더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현재 가족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국 거주기간과 물질주의 가치관 약화는 부적인 관계가 있어서 탈북한 후 중국 등 제3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 대로이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관련되는 변인은 제3국 거주기간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가족동반 탈북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에서 탈출한 지 오래되고 제3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가치관의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 새터민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교

표 4.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n=195)

가치 영역	약화 되었음	강화 되었음	변화 없음
물질주의	150	23	22
집합주의	105	23	67
개인주의	78	51	66
가족주의	146	20	29
가부장적 성역할	151	10	34

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된다(이기영, 2000; 전우택, 2000).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아닌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가치관의 변화는 시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후 새터민의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었지만, 탈북 후 제3국에서 보낸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치관이 약화된 정도는 낮아진다. 즉 북한에 있었을 때보다 물질주의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중국에서 지낸 시간이 긴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남한에 입국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5. 물질주의 및 가족주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165)

변수	물질주의 가치관 약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가족주의 가치관 약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령	-.05 (.03)	-.03 (.02)
성별(여성=1)	-.58 (.52)	-.27 (.45)
가족동반 탈북여부	-1.03 (.47) *	-.26 (.42)
기혼 여부	2.01 (.70) **	.61 (.60)
교육수준(대졸이상=1)	-.43 (.56)	.37 (.51)
제3국 거주기간(월)	-.58 (.16) ***	-.34 (.17) **
입국 후 경과기간(월)	-.38 (.17) *	.03 (.14)
상수	3.34 (1.12)	2.55 (.92)
Chi-square (df)	29.90 (7) ***	13.99 (7) *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에 있었을 때와 남한에 있었을 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처럼, 남한에 온 직후와 남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장기화된 이후의 가치관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남한에 온 후 물질주의 가치관이 단기적으로 약화되지만, 남한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의 변화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기간에 따라 종단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념정향이나 가치는 구조화되었다가 재구조화되는 사고의 구축물론이다. 이 연구는 사회이념이 다른 두 사회를 경험할 때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가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새터민, 즉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성인 195명을 조사하여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의 다섯 영역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새터민들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남한에 와서 생활하면서 변화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주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는데,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모두 남한에 온 후 약화된 것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의 특징으로 가정되지만, 연구 결과 식량이 부족

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북한에서 새터민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오히려 강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물질주의 가치정향이 낮게 인식되는 것은 물질이 그만큼 풍부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도 정부의 정착금이나 생계급여 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감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터민들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삶을 평가하기 보다는 어쩌면 극한상황에서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물질 보장을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새터민들은 남한에 와서 집합주의 가치관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집합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다는 일반적 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새터민이 남한에 온 후 집합주의 가치관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다. 북한의 집합주의 체제가 개인의 삶을 구속하기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해방된 이후 자신의 삶을 보다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새터민의 개인주의 가치관은 변화하지 않았다. 한 개인 속에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별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이론적으로는 정반대의 가치 정향으로서 한 개인에게서 하나의 정향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각각이 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정향이 상반된 가치일 것이라는 이론적 추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두 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원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는 상충되는 가치

관으로 일직선상의 양극에 위치한다는 이론상의 가정과 달리 두 이념은 일직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차원에 위치한다. 게다가 두 차원의 가치 정향이 공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의 면과 다른 차원의 한 면이 만나는 구조로서 실제로 가치정향의 일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은 아직은 이론적 가정일 뿐 경험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른 조사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자료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네티즌 4천명을 조사한 대규모의 연구에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상충된 정향이 아니라 중복된 정향으로 나타났다(이순형, 1996, 2005).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치관의 중복성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이념정향의 이중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념정향 연구에서 서구의 연구자가 이중성을 놓쳤거나, 실제로 가치의 이중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서구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가치의 이중성이 한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경험의 특수성 때문인지 모른다. 전통사회에서 강조된 유교적 집합주의가 배어있는 가정문화와 집단의 화합을 강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치일 수 있다. 반백년 동안 서구사회의 민주주의를 경험했지만 아직 개인의 의식 속에는 체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논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새터민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역시 변화되었다. 가족 우선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었고, 특히 남성과 여

성의 엄격한 성역할 분리를 의미하는 가부장제 성역할태도는 남한에 온 후 가장 많이 약화되었다. 북한이나 남한은 모두 가족주의 가치가 강한 사회이다. 특히 북한은 공산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족주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주의가 정치 원리 속에 내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명명되는 북한사회(박현선, 2003)에서는 남녀의 역할 분리가 명확하고, 위계적 서열관계가 분명하다. 새터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양성평등적인 이념과 생활양식에 보다 자주 노출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재평가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정향을 재구조화한다.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가족동반 탈북 여부, 탈북 후 제3국 거주기간, 입국 후 경과기간 등 살펴본 요인들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가치관의 변화에 별 관련되지 않는다. 새터민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된다(이기영, 2000; 전우택, 2000).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여성,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 변화에 보다 융통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치관의 변화에는 이러한 요인들보다 오히려 시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탈북 후 제3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을수록, 그리고 남한에 입국한지 오래 되

었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재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 역시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의 가치관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한에 들어온 후 정부의 정착금 지원에 따른 안도감이 새터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가, 남한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다시 경제적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주의 가치 역시 북한을 탈출한 직후에는 약화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족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강해져서 가족주의 가치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탈북 과정에서 가족은 부담이나 장애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존의 동기나 힘이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극단적으로 이념과 사회체제가 다른 사회를 경험한 새터민들의 자기 평가 자료를 통해서 국가이념이라는 거시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심리적 가치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점 역시 있다. 먼저 새터민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신문사를 통한 편의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새터민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문을 구독할 만큼 거주가 안정된 사람들이 주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새터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들이 주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편의표집으로 인해 본 연구의 자료가 새터민 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가치정향을 조사할 때 북한에서의 가치정향을 회고적으로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기억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응답의 분포를 보았을 때, 표준편차의 범위가 가치관 영역별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고, 가치관 영역별로 평균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추어 회고에 의한 체계적 바이어스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조사도구의 개발과 가치관 중에서 개인주의나 집합주의 정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추후연구에 의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 고병철 (1990). 주체사상의 형성과 사상체계분석. 최명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박성희 (1995) 북한 청소년의 생활. 서울: 공보처.
- 박현선 (1998).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도서출판 한울.
- 북한연구소 (1978).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 안연진 (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0). 한국가족의 기능 연구: 대내적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기영 (2000).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통일에 앞서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출판부.
- 이순형 (1993).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한국학보, 제71집, 92-119.
- 이순형 (1996). 가족주의와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 가치간의 관계-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지, 30, 가을, 545-573.
- 이순형 (1999)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화 정책의 원리와 그 한계. 교육학연구, 37권, 4호, 120-136.
- 이순형 (2005) 붉은 악마와 월드컵. 서울: 서울대출판부.
- 임현진, 정영철 (2005).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우택(1997).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 12, 3-18.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차재호 (2000).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 최완규(1987). 이데올로기의 위상 변화: 맑스 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고재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최홍기(1982). 북한가족제도의 변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권 2호, 215-246.
- 최홍기(1991). 해방후 북한가족제도 변혁에서의 변화와 연속성. 북한연구, 2권, 1호, 190-207.
-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2006). 가족발달. 한국

-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은
어떠한가. [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
bukhandb_06_25.jsp](http://unibook.unikorea.go.kr/bukhandb/bukhandb_06_25.jsp)
통일부 (2004).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 개선.
통일부 (2005).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관련 통
계. <http://www.unikorea.go.kr<통일소식>>
대북정책초점.
Bronfenbrenner, U. (1975) *Two worlds of childhood:
U.S. and U.S.S.R.* Pengui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osenberg, S., Ward, D., & Chilton, S. (1988).
*Political reasoning and cognition: A Piagetian
view*. Duke University Press.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an Francisco: West View Press.

1 차원고접수 : 2006.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8.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9. 05.

Changes of Val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Materialism, Collectivism, Individualism, Familism, and Gender Role Attitudes

Soon Hyung Yi

Meejung C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scertains how political ideology influences the value systems of individuals by examining the ca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urrently reside in South Korea. These individuals, who had lived under the two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experience the changes in their value system. Focusing on materialism, collectivism, individualism, familism, and patriarchal gender role attitudes, the study asked North Korean defectors to assess the changes in these domains after they had entered South Korea. Paired-t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195 recent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ubscription for these values, except for individualism, were much stronger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than when they are in South Korea. Moreover, if they exited North Korea with their family or were married at that time, the level of their materialism were less likely to decrease after the defection. The longer they stayed in the third countries after the exit from North Korea, the less likely the level of their materialism and familism to decrease.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value orientations, materialism, collectivism, individualism, familism, patriarchal gender role attitudes